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아동의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

The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차성혜(Sung-Hye Cha)¹⁾

도현심(Hyun-Sim Doh)²⁾

최미경(Mi-Kyung Choi)³⁾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rough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436 elementary school 4th-6th graders (of which 233 were boys, and 203 were girls) in Seoul.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vels of school adjustment.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t was found that maternal parenting behavior indirectly, but not directly, influenced children's levels of school adjustment through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ed the effects of maternal warmth/acceptance and rejection/restriction on level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emotional intelligence plays a crucial role in improving the level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³⁾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I. 서 론

중·고등학교 시기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이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유능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며, 아동은 이 시기를 통해 인지능력의 확장과 함께 다양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Erikson, 1963). 학령기의 원만한 학교생활은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 뿐 아니라 이후의 성격이나 사회성 발달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령기 아동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성장·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령기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발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이웃, 학교, 친구 등의 다양한 환경 요인들 가운데 가정 요인을 대표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라은숙, 2005; 안현지, 1999; 양애경, 2000; 이원영, 1983; 이정윤·이경아,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을 잘하였으나 거부적,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영·김경혜, 2005). 초등학교 3, 5학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장영애·박정희, 2008)에서도,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수업,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교환경, 학교행사참여를 잘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그렇지 못하였다.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높았으며, 부정적일수록 낮았다(Amato & Fowler, 2002; DuBois, Eitel, & Felner, 1994; Pettit, Bates, & Dodge, 1997).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들로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등을 들 수 있다(고근중, 2006; 송영경, 2006; 신진희, 2005). 이러한 변인들 가운데 정서지능은 아동의 건전한 성격형성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그리고 인간의 성공과 건강, 행복을 예측하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정원, 2002; 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 Salovey와 Mayer(1990)에 의하면, 정서지능은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원만한 인간관계, 학업 성취나 직장 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박미영, 2008; 서미화, 2008; 최현주, 2005).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일수록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가 좋고, 학습활동, 규칙 준수, 학교행사에 참여를 잘 한 반면, 정서지능이 낮은 아동일수록 이러한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다(권성은, 2003). 이와 같이, 정서지능이 아동의 원만한 인간관계 및 학업 등과 무관하지 않고, 나아가 아동의 주변 환경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적응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파

악할 수 있다.

앞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지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각관련 두뇌 영역이 유년기 초기에 성장이 거의 완성되는 반면, 정서적인 측면을 관장하는 전두엽은 사춘기 후반인 16-18세에 이를 때까지 성장을 계속한다. 이 때, 유년기와 10대에 반복되는 행동들이 정서지능의 형성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학교 시절은 평생의 정서적 성향의 틀을 형성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Goleman, 1995). 이렇듯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지능지수(IQ)에 반해, 정서지능(EQ)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은 부모와 자녀간의 원만한 관계에서 시작된다(Mayer & Salovey, 1996). 즉,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같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서지능이 훨씬 높았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은 높았다(박서정 · 김순옥, 2005; 박영애 외, 2000; 이영환 · 김현지, 2001; 전정미 · 유미숙, 2006). 반면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욕구불만이나 발달장애, 부적응 행동 등의 여러 정서적 장애를 일으켜(이영화, 1998),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각각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 간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이정윤 · 이경아, 2004). 이러한 세 변인들 간의 관계에 근거할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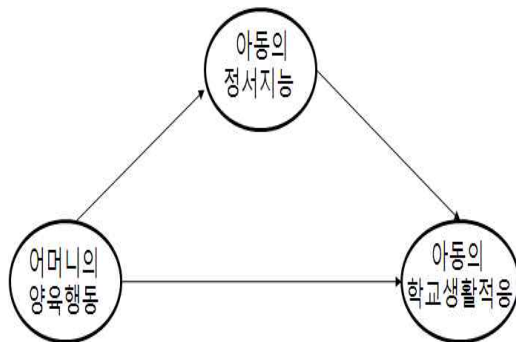
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지능을 통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 아동의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대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고려한 연구들은 이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존중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대인관계 및 인기도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고(전정미 · 유미숙, 2006),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아동의 교사 및 교우관계, 학교 수업 및 규칙 등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한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백경미 · 현성용 · 한영숙, 2008).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개인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향상 또는 저하될 수 있고,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는 수준에 차이가 생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해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비롯하여 아동의 정서지능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 1-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1-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지능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두 곳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436명의 아동들(남아 : 233명, 여아 : 203명)로서, 4학년, 5학년, 6학년생은 각각 159명(36.5%), 139명(31.9%), 138명(31.6%)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 4-6학년으로 선정한 것은 이 연령층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발달시켜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시기에 속하며, 청소년기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류지연, 2008; 문미영, 2001)에 근거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 학교 졸업이 각각 142명(31.5%)과 140명(31.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162명(37.2%),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170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교생활적응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척도는 아동 자신에 의해 평가되었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Schaefer(1965)의 양육행동 모형을 토대로 박영애(1995)가 개발한 아동용 양육행동 척도를 수정·보완한 김문정(2003)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온정/수용(10문항), 거부/제재(10문항), 허용/방임(10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수용 요인은 ‘내 기분을 잘 이해해 주신다.’, ‘내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신다.’ 등으로, 거부/제재 요인은 ‘나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나에게 보기도 싫다고 하실 때가 자주 있다.’ 등으로, 허용/방임 요인은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분석 시 각 하위요인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일치시키고자,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요인은 역코딩을 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보다 더 온정/수용적이며, 덜 거부/제재적이고, 덜 허용/방임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허용/방임 요인은 요인부하량이 .238로 낮게 나와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잠재변수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측정변수에는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 요인만이 포함되었다. 어머니의 온정/수용과 거부/제재의 Cronbach's α 는 각각 .90과 .82이었다.

2) 아동의 정서지능

아동의 정서지능은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문용린(1996)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인식(8 문항), 정서표현(7문항), 감정이입(7문항), 정서조절(15문항), 정서활용(10문항)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며,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인식 요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표현 요인은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능숙하게 인식하고, 그 반응에 감정이입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정이입 요인은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정서조절 요인은 다른 사람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능력을 말하며, 정서활용 요인은 사고, 추리, 문제해결, 창의적 과제 등에서 적응적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서, 정서인식 요인은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정서표현 요인은 '나는 어머니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감정이입 요인은 '나는 몸이 약한 친구를 보면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정서조절 요인은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한다'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정서활용 요인은 아버지께서 야단을 치실 때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혹은 '아버지가 미워지고 짜증이 난다' 가운데 답을 택하도록 되어있다. 정서활용 요인을 제외한 네 개 요인은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런 편이다(2점)', '항상 그렇다(3점)'로 평가하는 Likert식 3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정서활용 요인의 경우, 긍정적인 답을 했을 경우에는 3점, 부정적인 답을 했을 경우에는 1점으로 평가하였다. 정서표현 요인은 분석 시 역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서표현 요인은 요인부하량이 .269로 낮게 나와 본 분석에서는 제거하였다. 따라서 잠재변수인 아동의 정서지능을 설명하는 측정변수에는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요인만이 포함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각각 .77, .76, .87과 .70이었다.

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김정환(1981)의 학교환경 관련 태도 측정도구와 문선모(1977)의 척도 영역을 참고로 하여 이상필(1990)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참여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수는 각 요인별 5문항씩 총 25문항이다. 문항의 예를 들면, 담임교사와의 관계 요인의 경우,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교우관계 요인의 경우, '우리 반 아이들 누구와도 잘 어울려 지낸다', 학습활동 요인의 경우, '공부 시간이 재미있다', 규칙준수 요인의 경우, '학교에서 정한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 학교행사참여 요인의 경우, '자연보호, 골목청소, 봉사활동에 즐

겹게 참여한다' 등이 포함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담임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참여 요인의 Cronbach's α 는 각각 .82, .69, .75, .79와 .76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2008년 12월에 서울시 소재의 S초등학교와 D 초등학교의 4·6학년 각각 6개 학급씩 총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담임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각 교사는 아동들에게 질문지를 배부·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회수된 470부의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4부를 제외하고, 총 436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는데,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와 함께 적합도 지수 RMSEA, TLI 및 CFI를 고려하였다. RMSEA와 TLI는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이고, CFI는 모형의 간명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 지수로서, 이러한 적합도 지수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2000).

III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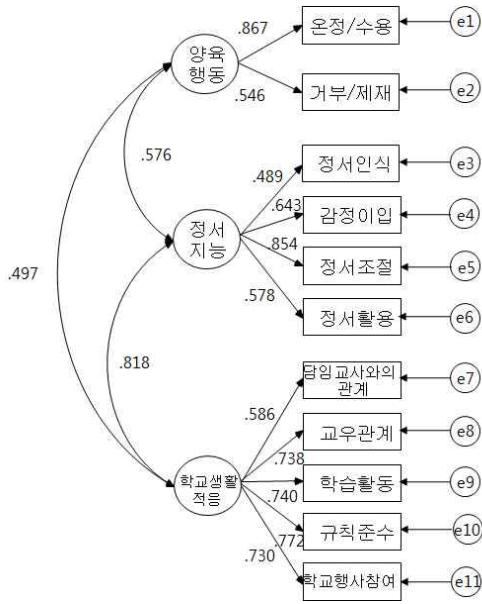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조사도구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표 1>, <그림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68, TLI = .936, CFI = .952로 나타

<표 1>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i>B</i>	β	<i>SE</i>	<i>t</i>
어머니의 양육행동	온정/수용	1	.867	-	-
	거부/제재	.461	.546***	.067	6.857
아동의 정서지능	정서인식	1	.489	-	-
	감정이입	1.689	.643***	.190	8.876
	정서조절	2.086	.854***	.211	9.87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정서활용	1.716	.578***	.205	8.383
	담임교사와의 관계	1	.586	-	-
	교우관계	1.059	.738***	.092	11.523
	학습활동	1.162	.740***	.101	11.550
	규칙준수	1.241	.772***	.105	11.841
	학교행사참여	1.281	.730***	.112	11.446

주) 거부/제재 요인은 역코딩하였음.

****p* < .001.



주) 거부/제재 요인은 역코딩하였음.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충족시켜 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였다.

측정모형의 집단별 동질성을 검토하고자 성별에 따라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남녀집단의 측정모형에 대해 비제약모형(A)과 측정제약모형(B), 구조공분산 제약모형(C)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에서 비제약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 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았으며 ($A : B \rightarrow \Delta\chi^2 = 4.489; \Delta df = 8; p = .811$), 또한, 측정제약 뿐만 아니라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제약모형은 제약 이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았다 ($A : C \rightarrow \Delta\chi^2 = 17.913; \Delta df = 14; p = .211$). 이것은 측정모형의 자료가 서로 동질적인 것임을 의미하므로 이후 측정모형을 포함한 인과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매개모형의 검증은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실

시하였다.

2.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체 잠재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2>).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표 2> 잠재변수들간의 상관관계 (N = 436)

	1	2	3
1. 어머니의 양육행동	-		
2. 아동의 정서지능	.576***	-	
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497***	.818***	-

*** $p < .001$.

3. 구조모형 분석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68, TLI = .936, CFI = .952$ 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지능($\beta = .576, p < .001$)에, 아동의 정서지능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beta = .796, p < .001$)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표 4>). 즉,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이고 거부/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χ^2	df	p	RMSEA (90% 신뢰구간)	TLI	CFI
122.324	41	.000	.068(.054-.081)	.936	.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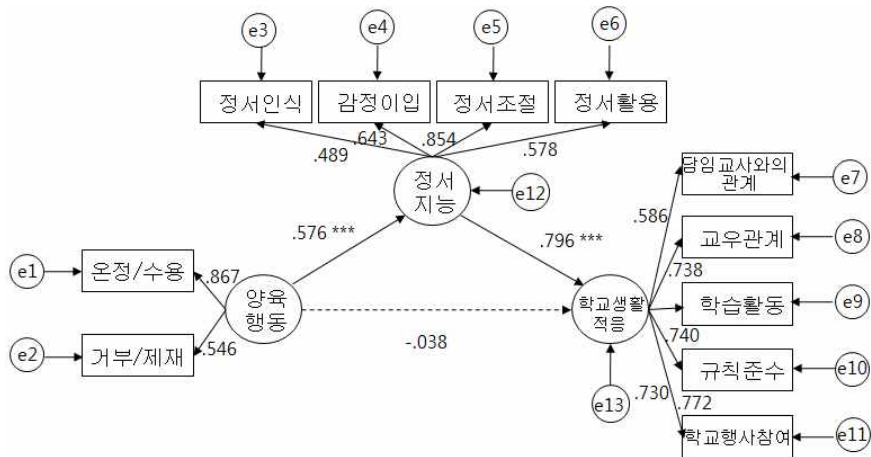
제재를 덜 할수록 아동의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등의 정서지능이 높았으며,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아동은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참여 등과 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38, p > .05$).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정서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t	p
어머니의 양육행동 → 아동의 정서지능	.373	.576	.057	-6.488	***
어머니의 양육행동 →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057	-.038	.091	-.625	.532
아동의 정서지능 →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1.813	.796	.248	7.315	***

*** $p < .001$.



주1) 거부/제재 요인은 역코딩하였음.

주2)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 $p < .001$.

<그림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지능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경로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경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경로와 관련하여,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지능을 통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일수록, 거부/제재를 덜 할수록 아동은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및 정서활동 등과 같은 정서지능이 높았으며, 궁극적으로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및 학교행사 참여 등과 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존중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변인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및 인기도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을 보고한 연구결과(전정미·유미숙, 2006)와 유사하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교사 및 교우관계, 학교 수업 및 규칙 등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매개적 역할을 한 연구결과(백경미 외, 2008)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성숙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정서적 능력은 나아가 담임교사 및 교우관계와의 관계를 포함한 여러 학교생활적응 영역에서 유능한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정서가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준 것으로서, 뒤에서 언급될 정서지능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고,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서지능이 낮다는 연구결과(박영애 외, 2000)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높은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김향희, 1996; 이광자, 1997; 이영환·김현지, 2001; 장미선·문혁준, 2006)을 지지한다. 이 외에도 어머니가 온정적,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의 자기통제력을 비롯한 정서지능이 높다는 연구결과(안현지, 1999)와도 유사하다. 즉,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정서지능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경험은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적 요인입(곽윤정, 1997;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다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의 중요한 관련요인이고, 학령기는 정서지능 발달과정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Golman,

1995)에서, 아동의 긍정적 정서지능의 형성과 발달을 위해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하게 한다.

또한,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지능이 높은 집단일수록 주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대인간 문제해결력이 높아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들(권성은, 2003; 서동식, 2002; 심혜숙·왕정희, 2001; 현인숙, 1999)과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융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 학습활동, 주의집중 등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Salovey & Mayer, 1990)를 지지한다. 또한 정서지능이 낮을수록 대인 문제를 부정적으로 해결하려 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감정이입 능력이 부족하여 집단에서 부정적 지명을 많이 받아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박찬옥, 1986; Goleman, 1985; Spivack & Shure, 1974)과도 유사하다. 이와 더불어 낮은 정서지능을 가진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와 공격적 성향이 많아 행동조절이나 인지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킨다는 연구결과(Eisenberg et al., 1995)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동의 학교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생활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정서지능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의 정서지능은 건전한 성격형성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정원, 2002; 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 정서지능의 권위자인 Salovey와 Mayer (1990)도 그들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은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원만한 인간관계, 학업 성취나 직장 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정서지능

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기반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관점(Salovey & Mayer, 1990)에서 볼 때, 아동의 정서지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동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아동의 정서지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각 연구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점에 근거할 때,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교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반영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고려함에 있어 그 개별적, 상대적 영향력의 의미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아동의 정서지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의 정서지능을 높이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아동의 정서발달과 사회성발달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케 한다. 이와 동시에, 아동의 정서지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덜 하지만, 어

머니의 양육행동 역시 궁극적으로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과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포함한 모든 연구변인을 아동의 자기보고용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측정 시 아동 보고가 어머니 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타당도를 지닌다는 연구결과들(임정하, 2006; 정지영·김희화, 2004; Purdie, Carroll, & Roche, 2004)이 발견되기는 하나, 동일한 보고자로 인해 발견된 결과는 다소 과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평가한 양육행동도 포함하여 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관찰법, 면접법 등의 다양한 조사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의 부모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라는 모-자녀관계 요인과 아동의 정서지능이라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아동을 둘러

싼 환경적 요인과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교생활적응 등 세 가지 변인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아동의 정서지능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다란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재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참 고 문 헌

- 고근중(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아 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성은(2003).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2(2), 163-176.
-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원(2002).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7(3), 247-261.
- 김정환(1981). 학교의 물리적 환경변인이 아동의 정서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라은숙(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선도(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 4집.

- 문용린(1996). **한국에서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서울 : 세종문화회관.
- 박미영(2008).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서정 · 김순옥(2005).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 조절 능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35-49.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2), 161-182.
- 박영애 · 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21-238.
- 백경미 · 한성용 · 한영숙(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66-667.
- 백경숙 · 권용신(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서미화(2007).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영경(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진희(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혜숙 ·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1), 163-175.
-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애경(2000). 아동의 정서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필(1990).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환 · 김현지(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신뢰감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8(1), 103-119.
- 이은영 · 김경혜(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0(1), 105-119.
- 이원영(1983). 유아기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운 · 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6(2), 261-276.
- 임정하(2006).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보고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4(6), 103-111.
- 장미선 · 문혁준(2006). 아동의 정서지능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11-21.
- 장영애 · 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 전정미 · 유미숙(2006).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3), 225-240.
- 정미영 · 문혁준(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지영 · 김희화(200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율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63-173.
- 차유림(2001). 아동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 Amato, R. R., & Fowler, F. (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703-716.
- Betts, L. R., & Rotenber, K. J. (2007). Trustworthiness, friendship and self-control : Factors that contribute

- to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 491-508.
- Bronstein, P., Clauson, J., Stroll, M. F., & Abrams, C. L. (1993).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diverse family structures. *Family Relations*, 42, 268-276.
- Dekovic, J., & Patricia, M. (1992). Parents child-rearing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32, 637-649.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Maszk, p., Smith, M., & Karbon, M. (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0-1384.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 Norton.
-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zweig, J., Speer, A. L., & Carlo, G. (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4-55.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sic Books.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 Kurdek, L. A., & Sinclair, R. J. (1995). School adjustment in sixth graders : Parenting transi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6, 430-445.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Lazarus, R. S. (1974). *Pattern of adjustment*. New York : Mcgraw Hill.
-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R. (2008). Emotional intelligence : New ability or eclectic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63, 503-517.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16, 39-47.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 908-923.
- Purdie, N., Carroll, A., & Roche, L. (2004). Parenting and adolescent self-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7, 663-676.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 Guilford.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24-35.
- Shaefer, E. S. (1965a).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haefer, E. S. (1965b).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Wentzel, K. R. (1991). Relations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2, 1066-1078.

2010년 4월 30일 투고, 2010년 6월 28일 수정
2010년 7월 8일 채택